

2010 문화계 결산

◎ 미술

올 한해 이 지역 문화계 이슈는 제8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와 문화재단 창설에 따른 '문화관 대변동'이다. 또 첫 선을 보인 '아트 광주'가 절반의 성공의 거두고, 광주국제공연예술제도 성공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역 문화계의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발전 과정을 미술과 공연 등 총 2회로 나눠 돌아본다.



올 한해 지역미술계는 광주비엔날레와 아트 광주 등 대규모 국제행사들이 잇따라 열리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불거리가 풍성했다.

<광주일보 자료>

외형적 성공... 내실 다져야 할 때

지역 미술계는 올 한해 그 어느 때 보다 바쁜 나날을 보냈다. 제8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과 아트 광주의 첫 개최가 가장 큰 학두였다.

광주비엔날레는 인류가 만들어낸 '이미지'의 다양한 정의와 양상을 선보여 해외 전문가·언론의 찬사가 이어졌다. 유명 예술잡지 아트포리미 매년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선정, 발표하고 있는 '2010년 베스트' 중 예술 분야 베스트에도 선정됐다.

광주비엔날레·국제 아트페어 등 수준면에서 높은 점수

젊은 작가 전시 기회·지역발전 연계 등 장기적 방안 시급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키스 해링전 등 대규모 전시 눈길

이번 전시를 통해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를 넘어 베니스비엔날레 등 세계 유명 미술 행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미국 뉴욕의 뉴욕미술관, 구겐하임의 운영진, 런던 테이트모던, 뉴욕 국립 현대미술관(MOMA)의 수석 큐레이터와 베니스·리버풀비엔날레 등 세계 유수 비엔날레 감독과 관계자들도 광주를 찾았다.

외국인 관람객도 2만8000여명으로 전체 관람객의 5.8%를 차지해 3~4%에 머물렀던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또 양동시장에서 펼쳐진 특별프로젝트 '시장 속의 비엔날레'와 시민참여프로그램 '만인보+1' 전이 열린 광주 도심 25개

전시장에는 16만3천여명의 관람행렬이 이어졌다.

반면, 광주비엔날레의 예술적 성공을 지역 발전으로 연계하고, 부산비엔날레와 일본 등 아시아 후발 비엔날레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는 숙제도 남겼다.

올 해 지역 미술계는 비엔날레와 더불어 국제 화단을 움직이는 거대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제 아트페어를 처음으로 열었다. '아트 광주'에는 비엔날레를 치르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3만여명의 관람객이 유리공예의 진수를 만끽했다.

지난 7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열린 '키스 해링 광주전'(오는 2011년 2월 27일까지)도 지역 화단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규모 전시로 평가받았다.

해외 화단에서 지역 작가들의 활약도 눈부셨다. 설치작가 손봉채씨는 2010 광주시 문화예술상 특별상을 수상했고, 난징비엔날레 등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또 서양화가 박소빈은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현지 평론가와 '아트뉴스' '아트 인 아메리카' 등 미술 전문지의 호평을 받았다.

미디어 아트 작가 이이남씨도 서울 G20 정상회의 회의장과 각국 정상 및 관계자들의 숙소인 코엑스 파크 하얏트 서울 객실 등 10여 곳에 작품을 전시해 눈길을 사로 잡았다.

이 밖에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입주 작가인 김해성·전현숙·조강현·김진화·김일근씨의 작가도 중국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하지만 외형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화랑 가의 거래가 많기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젊은 작가들의 고통은 여전했다.

광주시립미술관 박지택관장은 "상업화 화랑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젊은 작가들의 전시회 기회도 줄었다"면서 "내년에는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미술 기획도 눈길을 끌었다. 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탈리아 전통 유리 공예 전시회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6월 19일~8월 22일) 특별전이 지역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는 도시에서 열린 미술장터답게 세계적인 유명 갤러리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수준 면에서는 높은 평점을 받았다.

이번 아트페어에는 영국의 리슨갤러리와 이탈리아의 컨티뉴아일러리 등 해외 갤러리 23곳과 박여숙화랑, 예화랑 등 국내 30곳이 참여해 40억원 가량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하지만 참여 화랑은 늘리고, 지속적인 개최를 위한 예산 마련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대규모 미술 기획도 눈길을 끌었다. 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탈리아 전통 유리 공예 전시회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6월 19일~8월 22일) 특별전이 지역

는 작가들의 고통은 여전했다.

광주시립미술관 박지택관장은 "상업화 화랑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젊은 작가들의 전시회 기회도 줄었다"면서 "내년에는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예총 회장선거, 현 회장 재출마 '시끌'

"규정 어긋난다" "한국예총 등에 유권해석 받았다"

22일 선관위 회의 일정 확정... 정철씨와 2파전 될 듯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광주예총 제 8대 회장 선거가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 회장의 재출마와 관련, 정관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예총(회장 최규철)은 22일 예총 사무실에서 제8대 임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관표 광주예총 부회장)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 일정 등을 확정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치러지며 후보 등록은 28일부터 1월 3일 오후 5시까지다. 후보 마감 후에는 투표에 참여할 대의원 명단도 공개된다. 정관에 따르면 회장 선거에는 10개 협회에서 8명씩 대의원 80명과 본부 임원 14명 등 모두 94명이 참여한다. 지난 선거까지는 55명이 참

여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초대 임병성 회장을 제외하고는 강봉규·한민섭·윤광렬·박금자 회장 등 역대 회장이 4년 단임으로 임기를 마친 점을 감안하면 정관 규정은 오래전부터 '단임'으로 해석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초대 임병성 회장을 제외하고는 강봉규·한민섭·윤광렬·박금자 회장 등 역대 회장이 4년 단임으로 임기를 마친 점을 감안하면 정관 규정은 오래전부터 '단임'으로 해석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관행을 깨고 연임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현 회장과 계속 대화를 나눌 예정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5~26일 문예회관 소극장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3년째 전국 투어 공연신화를 이룬 어린이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가 어린이 팬들을 찾아온다. 25~26일 광주 문예회관 소극장.

독일 작가 베르너 훌츠바르트의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는 갈수록 완성도를 높여가며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서울 극단 '예인'이 맡았다.

똥을 머리에 이고 범인 검거에 나선 두 더지는 비둘기·말·토끼·염소·소·돼지를

만나 그들의 똥을 직접 보지만 알아내지 못한다. 그러나 똥을 먹이 삼는 파리를 만나서야 비로소 짐육집 짹 개 한마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두더지는 한마리의 머리 위로 올라가 '새발의 꾀' 같은 두더지 똥을 쌓고는 도망간다.

재미있는 스토리 구성과 함께 흥겨운 음악과 춤으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전한다. 티켓 가격 전석 2만5000원. 문의 1600-45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키스 해링' 전 미술교사 초청 설명회 이달 말까지 연장

수준 높은 전시 기획으로 인기 물이 중인 '키스 해링전'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2011년 2월 27일까지)에 광주·전남 지역 일선 학교 미술 교사를 초청, 팝아트의 세계를 소개하는 설명회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지난 14일 까지 계획됐던 이번 설명회에 지역 교사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미술 교사 초청 설명회는 지역 미술

교사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사 신분증을 지참하면 무료 입장할 수 있다. 평일 오후 6시, 주말과 휴일 오후 4시에는 교사들을 위한 도슨트 설명회도 열리며 진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빛나는 아이' 등 팝아트의 거장 키스 해링의 대표작 150여점을 선보인다. 문의 062-613-539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고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

쌀쌀한 겨울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신양파크호텔" 객실 패키지

신양파크 호텔 객실 패키지

- 스탠다드 객실(1실) + 사우나 1인 ₩ 90,000
- 스탠다드 객실(1실) + 조식 1인 + 사우나 1인 ₩ 100,000
- 스탠다드 객실(1실) + 조식 2인 + 사우나 2인 ₩ 110,000

행사기간 | 2010년 12월 1일 ~ 2011년 2월 28일 상담 및 문의 | 062)228-8000, 221-4101~3



Christmas Family Buffet

12월 24일 18:00~21:00

12월 25일 12:00~15:00

대인 ₩30,000

소인 ₩20,000 (VAT포함)

상당원연결 방영~(1번 or 2번)→0번
☎ 1588 - 7941

상무점 **콜롬버스시네마** **아남점**

1관 써리 데이즈(15세)
2관 제제한 로맨스(18세)/김종우 찾기(12세)
3관 황해(18세)
4관 황해(18세)
5관 나니아연대기(전체)/투어리스트(15세)
6관 황해(18세)/세미의어드벤처(전체)
7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1부(전체)
8관 세미의어드벤처(전체)/헬로우고스트(12세)
9관 헬로우고스트(12세)
10관 해리포터와죽음의성물1부(전체)

상당원연결 방영!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 /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아남점 동시개봉!!

MEGABOX

1관 황해(18세)
2관 헬로우 고스트(12세)
3관 김종우 찾기(12세)
4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1부(전체)
5관 헬로우 고스트(12세)
6관 제제한 로맨스(18세)
7관 써리 데이즈(15세)
8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1부(전체)
9관 황해(18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은 한화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구. 렌던 악국사거리 ☎ 1544 - 0600

CINUS

1관 황해(18세)
2관 헬로우 고스트(12세)
3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1부(전체)
4관 제제한 로맨스(18세)/김종우 찾기(12세)
5관 투어리스트(15세)/나니아연대기(전체)
6관 해리포터와죽음의성물1부(전체)
7관 황해(18세)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씨너스전대3D(4K)상영!!